

http://dx.doi.org/10.17703/JCCT.2022.8.4.53

JCCT 2022-7-7

## 간호대학생의 MBTI에 따른 돌봄효능감의 차이

### Difference of Care Efficacy according to Myer-Briggs Type Indicator in Nursing Students

오은진\*, 박순아\*\*

Eun-Jin Oh\*, Sun-Ah Park\*\*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에 따른 돌봄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경남지역 1개 대학의 간호학과 3, 4학년 109명이다. 자료분석은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돌봄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전공만족도(3.63,  $p<.001$ ), 실습만족도(4.49,  $p=0.013$ ), 건강상태(2.91,  $p=0.004$ )였다. 돌봄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MBTI는 태도지표 중 EP형(3.74,  $p=0.013$ )였다. 본 연구 결과는 돌봄효능감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후속연구를 위해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대규모 표본을 적용한 반복 연구, 돌봄효능감 향상을 위해 MBTI를 적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연구, 돌봄효능감을 측정할 위한 도구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주요어** : 간호, 대학생, 돌봄, 효능감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out the differences in care efficacy according to MBTIs in nursing students. The study subjects are 109 students in grades 3 and 4 of nursing departments at 1 university in Gyeongnam Region. Data analysis was performed with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OVA.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a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 efficacy as a result of the study were major satisfaction (3.63,  $p<.001$ ), practice satisfaction (4.49,  $p=0.013$ ), and health status (2.91,  $p=0.004$ ). The MBTI, which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are efficacy, was an EP type (3.74,  $p=0.013$ ) among the attitude indicators. We believ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a basis for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the efficacy of care. Suggest repeated studies that apply large samples to generalize research for follow-up research, educational programs that apply MBTIs to improve care efficacy, program effectiveness analysis studies, and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tools to measure care efficacy.

**Key words** : Nursing, Student, Care, Efficacy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재학 중 3학년부턴 임상실습을 통해 대상자를 돌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돌봄이란 대상자와

가족의 신체적, 사회문화적, 정신적, 영적인 안녕을 돕는 대인관계 과정이며[1] 타인의 욕구와 안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것보다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본주의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다[2].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제공자는 돌봄

\*정희원, 경남도립거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희원,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5월 16일, 수정완료일: 2022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 2022년 7월 1일

Received: May 16, 2022 / Revised: June 15, 2022

Accepted: July 1, 2022

\*\*Corresponding Author: hgi96@hanmail.net

Dept. of Nursing, Koje. Univ, Korea

효능감이 있어야 하는데 돌봄효능감이란 간호제공자와 대상자와의 돌봄관계에서 관계형성의 노력, 의사소통, 인간존중, 스트레스 대처 등에 대해 간호제공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감의 정도이다[3].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돌봄효능감이 높으면 임상수행능력[4], 임상실습만족도[5]가 높고, 전문성과 업무능력, 문제해결능력이 높아 돌봄의 질을 높게 된다고 한다[6]. Lee와 Park(2016)은 돌봄효능감은 간호의 질을 높이고 직업에 대한 만족과 가치관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설명하고 있어[7] 돌봄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돌봄효능감은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후천적인 요인으로는 선행연구에서 감성지능과 도덕적 민감성[8], 변혁적 리더십[9], 공감능력[10] 대인관계 유능성[10], 의사소통능력[11], 문제해결능력[11] 임상수행능력[11] 스트레스 대처[4]가 높을수록 돌봄효능감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돌봄 효능감에 차이를 보이는 선천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로는 자아상태가 있다[9]. 선행연구는 비판적부모자아, 자유 어린이자아 등의 자아상태 관련 돌봄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교류분석이론에서 이러한 자아상태는 선천적인 영향일 수도 있으나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같이 돌봄효능감의 선천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돌봄효능감에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선천적인 요인으로 MBTI를 알아보려고 한다.

MBTI는 융의 이론[12]을 기반으로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개발한 것으로 개인의 4가지 선호경향에 따라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뉜다[13]. 선호경향이란 선천적으로 개인이 일관성있게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선호하는 생각과 행동의 경향성을 말한다[14]. MBTI는 16가지 성격유형 외에 심리기능, 기질, 태도지표 등을 분석하여 저마다 타고난 심리적 경향성과 행동패턴의 역동을 알아낼 수 있다[13]. 이러한 과정은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여 돌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돌봄효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BTI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GO(2014)는 MBTI 선호지표와 성격유형별 특성 이해 및 집단활동을 통해 불안,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14]. 그 외 선행연구에서는

MBTI 선호지표나 성격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15], 의사결정유형,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16],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학교적응[17]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의 MBTI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은[15-17] 돌봄효능감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보고되고 있다[4, 9, 1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MBTI, 돌봄효능감 정도를 확인하고, MBTI에 따른 돌봄효능감의 차이를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돌봄효능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MBTI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한다.
- 간호대학생의 돌봄효능감의 정도와 MBTI에 따른 돌봄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에 따른 돌봄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경남 소재 1개 대학에서 임상실습 참여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3, 4학년울 편의표집하였다. 연구의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자 수는 G\*Power 3.1.9.7[18]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검정력(1-β) .80 효과크기(effect size) .30, 유의수준(α)은 .05를 기준으로 산출 시 대상자는 최소 8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 후 자료수집에 참여한 대상자 수는 총 109명이었다. 모두 설문 문항에 누락된 응답이 없이 성실하게 응답하여 총 10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 3. 연구도구

#### 1) MBTI

본 연구에서는 Myers와 Briggs가 개발한 성격유형 검사 Myer-Briggs Type Indicator(MBTI)를 Kim과 Shim이[13] 한국어로 표준화한 자기기입식 94문항 Form M를

사용하였다. MBTI는 2가지 대극으로 구성된 4가지 선호지표로 개인의 선호경향성을 나타낸다. 4가지 선호지표는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 방향, 정보인식기능, 판단기능, 외부세계에 대처하는 생활양식이다. 개인의 정신적 에너지 방향은 외향형과 내향형(E,I)으로 구분되며, 정보수집기능은 감각형과 직관형(S,N), 의사결정기능은 사고형과 감정형(S,F)으로 구분한다. 외부세계에 대처하는 생활양식은 판단형과 인식형(J,P)으로 구분된다. MBTI 성격유형은 4가지 대극 선호지표를 조합하여 네 글자로 나타내는 16개의 성격유형을 나타낸다. 그리고 MBTI는 심리기능, 기질, 태도지표로도 구분할 수 있다. 심리기능유형은 SF형(Sensing Feeling), ST형 (Sensing Thinking), NT형(iNtuition Thinking), NF형(iNtuition Feeling)으로 분류된다. 기질은 SJ, SP, NF, NT 네 가지 유형이며 태도지표는 EJ, EP, IJ, IP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MBTI 선호경향 중 심리기능유형, 기질, 태도지표에 따라 돌봄효능감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2) 돌봄효능감

돌봄 효능감은 Coates가[19] 개발한 돌봄 효능감 도구(Caring Efficacy Scale, Form B)를 Jung[20]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이며 6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효능감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값은 .88이었고, Jung의 연구에서[20] Cronbach's  $\alpha$ 값은 .92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3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 기간은 2022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경남 지역 1개 대학의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 109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 전에 연구의 목적, 연구의 이익과 불이익, 자료수집 절차와 시간 외 수집된 자료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 후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과 설문 중에도 연구참여를 거부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MBTI 성격유형은 1학년 때 학생상담센터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를 기입해야 하므로 성격유형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는 연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은 동의서를 작성한 뒤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 소요되었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MBTI 성격유형,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 통계분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MBTI에 따른 돌봄 효능감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s를 시행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을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MBTI에 의한 대상자의 성격유형, 심리기능, 기질, 태도지표

표 1. 대상자의 MBTI에 의한 대상자의 성격유형, 심리기능, 기질, 태도지표  
 Table 1. Personality types, Function, Temperament, Attitude Indicators of subjects by MBTI (N=109)

Variable	Categories	n	%
16 types of MBTI	ISTJ	7	6.4
	ISFJ	20	18.3
	INFJ	3	2.8
	INTJ	4	3.7
	ISTP	4	3.7
	ISFP	7	6.4
	INFP	13	11.9
	INTP	1	0.9
	ESFP	8	7.3
	ENFP	11	10.1
	FNTP	6	5.5
	ESTP	6	5.5
	ESTJ	7	6.4
	ESFJ	15	13.8
	ENFJ	1	0.9
	ENTJ	2	1.8
Function of MBTI	ST	19	17.4
	SF	49	45.0
	NF	28	25.7
	NT	13	11.9
Temperament of MBTI	SJ	49	45.0
	SP	19	17.4
	NF	28	25.7
	NT	13	11.9
Attitude Indicators of MBTI	IJ	34	31.2
	IP	25	22.9
	EP	25	22.9
	EJ	25	22.9

조사대상자의 성격유형은 ISFJ형이 20명(18.3%)으로 가장 많았고, ESFJ형 15명(13.8%), INFP형 13명(11.9%),

ENFP형 11명(10.1%), ESFP형 8명(7.36%) 순이었으며, ISTJ형 7명(6.4%), ISFP형 7명(6.4%), ESTJ형 7명(6.4%)은 동일한 빈도도 나타났다. 심리기능 유형은 SF형 49명(45.0%), NF형 28명(25.7%), ST형 19명(17.4%), NT형 13명(11.9%) 순으로 나타났다. 기질은 SJ형 49명(45.0%), NF형 28명(25.7%), SP형 19명(17.4%), NT형 13명(11.9%) 순이었다. 태도지표는 IJ형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IP형 25명(22.9%), EP형 25명(22.9%), EJ형 25명(22.9%)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1>.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효능감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2>과 같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보면 성별, 학년, 부모동거 여부, 학점, 종교 유무에 따른 돌봄효능감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습만족도에서 '만족' 집단이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효능감의 차이  
Table 2. Difference of Care 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N=10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are Efficacy	
			M±SD	t(p)
Gender	Female	85(78.0)	4.35±0.68	0.21 (0.837)
	Male	24(22.0)	4.38±0.66	
Grade	3	51(46.8)	4.31±0.68	-0.49 (0.623)
	4	58(53.2)	4.38±0.66	
Living with parents	No	46(42.2)	4.45±0.65	1.36 (0.176)
	Yes	63(57.8)	4.27±0.67	
School record	≥ 3.5	60(55.0)	4.35±0.62	0.12 (0.905)
	< 3.5	49(45.0)	4.34±0.72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ory	41(37.6)	4.69±0.55	4.49 (0.000)***
	≤Common	68(62.4)	4.14±0.64	
Religion	Yes	25(22.9)	4.31±0.61	-0.33 (0.739)
	No	84(77.1)	4.36±0.68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ory	54(49.5)	4.57±0.60	3.63 (0.000)***
	≤Common	55(50.5)	4.13±0.66	
Volunteer experience	≥1 month	65(59.6)	4.28±0.70	-1.34 (0.183)
	<1 month	44(40.4)	4.44±0.60	
Health status	Good	53(48.6)	4.53±0.60	2.91 (0.004)**
	≤Common	56(51.4)	4.17±0.67	

‘보통 이하’ 집단보다 돌봄효능감(t=4.49, p<0.001)이 더 높았다. 마찬가지로 전공만족도 ‘만족’집단은 ‘보통이하’ 집단 보다 돌봄효능감(t=3.63, p<0.001)이 더 높았다.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 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보통이하’라고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돌봄효능감(t=2.91, p<0.01)이 더 높았다.

3. 연구대상자의 MBTI에 따른 돌봄효능감의 차이

MBTI에 따른 돌봄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표 3>과 같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심리기능 유형, 심리기질유형에 따른 돌봄효능감의 통계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태도유형에서 IP형 보다 EP형, EJ형의 돌봄효능감이 높았다(F=3.74, p<0.05). 그리고, 성격 선호의 EI형에서 E형은 I형보다 돌봄효능감이 높았다(t=2.97, p<0.01).

표 3. 대상자의 MBTI의 심리기능, 기질, 태도지표에 따른 돌봄효능감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Care Efficacy of subjects according to function, temperament, Attitude Indicators of MBTI(N=109)

Variable	Categories	Care Efficacy	
		M±SD	F(p) Scheffé
Function of *MBTI	ST	4.05±0.94	1.78(0.155)
	SF	4.45±0.66	
	NF	4.32±0.64	
	NT	4.46±0.61	
Temperament of MBTI	SJ	4.43±0.64	1.27(0.289)
	SP	4.10±0.77	
	NF	4.32±0.64	
	NT	4.46±0.61	
Attitude Indicators of MBTI	IJa	4.26±0.63	3.74(0.013)* b<c
	IPb	4.05±0.73	
	EPc	4.56±0.60	
	EJd	4.55±0.60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돌봄효능감 정도를 확인하고, MBTI에 따른 돌봄효능감의 차이를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자아성장과 돌봄효능감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MBTI 4가지 선호지표를 조합한 성격유형 분석 결과 16개의 성격유형이 모두 나타났고, 성격의 빈도는 ISFJ형, ESFJ형, INFP형, ENFP형

ESFP형 순으로 높았다. 선행연구와 MBTI 성격유형을 비교해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17] ISTJ형, ESFJ형, ESTJ형, ESTP형, ISFJ형 순이었다. Chae의 연구[21]와 Park 연구에서[22]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은 ESFJ형이 가장 많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ESFJ형은 주기능인 감정을 밖으로 사용하여 따뜻함과 에너지를 발산하여 주변 사람들의 욕구에 민감하며 실제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데 익숙하다[23]. 그러나 ESFJ형은 자신의 비선호 기능인 사고와 직관을 너무 무시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상자를 돌봄에 있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우며 일을 처리하기 위한 폭넓은 가능성과 다양한 방식을 보지 못할 수 있다[17]. 그러므로 ESFJ형의 간호대학생은 열정, 따뜻함, 협조적, 조화, 성실, 끈기, 타인의 욕구에 민감함 등의 자신의 선호를 발달시키고 객관적 인식, 융통성, 다양성,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신의 비선호 경향을 인지하고 대처하려는 노력이 돌봄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심리기능 유형은 SF형, NF형, ST형, NT형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기능은 개인이 외부와 상호작용하는데 있어서 그 개인이 고유한 반응양식을 가지게 하는 내재적 심리경향성이다[24].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Cho와 Kim의 연구에서는 심리기능 유형은 SF형, ST형, NF형, NT형 순이었고[11], Park과 Kim의 연구에서는 SF형, NT형, ST형, NF형 순이었다[16]. Chae의 연구에서는 SF형, ST형, NF형, NT형 순으로 SF형이 제일 많은 것이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21]. 심리기능은 인식(S와 N)기능과 판단기능(T와 F)의 조합으로 SF형은 정보를 인식할 때 감각에 의존하고 판단을 위해서는 감정을 선호한다[24]. SF형은 정보인식 시 현실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 변화와 다양성을 보려는 시도가 부족하고 감정에 의한 판단을 선호하므로 객관적 진실과 논리와 분석에 의한 판단이 부족할 수 있다[24]. SF형은 사물에 관한 사실보다는 사람에 관한 사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우호적이고 동정적인 유형이므로 사람을 위한 서비스 직종에 끌리기 때문에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에게 많은 유형이다[21]. NF형은 정보인식에는 직관을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에는 감정을 선호하여 SF유형과 같이 인간적인 따뜻함과 인간관계에서 직관적인 통찰을 가지고 있으며 복잡한 의사소통에 관심이 많다[24]. 반면

SF형과 같이 객관적 진실, 논리와 분석에 의한 판단은 부족할 수 있다[24]. 반대형인 NT유형을 보면 정보인식에 있어서는 육감을 활용하는 직관을 선호하고 판단에 있어서는 사고의 객관성을 선호하는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유형이다[23]. ST형은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유형으로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논리적인 추론과 객관적인 분석으로 사실에 대한 결정을 한다[24]. ST형과 NT형은 인간적인 것에 끌리지 않으므로 사람과의 관계, 연결과 조화가 부족할 수 있다[23].

이렇듯 각 심리기능 유형마다 장점과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심리기능 유형을 이해하여 돌봄 상황에서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돌봄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질은 SJ형, NF형, SP형, NT형 순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17, 21] 심리기질은 두 가지 판단기능과 직관이 결합된 것(NF와 NT)과 외부세계에 대한 두 가지 양식(JP)과 감각(S)이 결합한 것(SJ와 SP)으로 성격에 대한 개인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방식으로 가정되는 4가지 범주가 있다[23]. 4가지 범주는 보호자, 예술가, 이상가, 합리론자이다[24]. SJ는 보호자적 기질로 책임감, 협력을 중시하고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고자 한다[24]. 간호대상자를 돌봄에 있어 이러한 경향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융통성과 적응력이 부족하여 다양한 간호문제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17]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돌봄에 대한 자신감인 돌봄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태도지표는 정신적 에너지 방향과 외부세계에 대처하는 생활양식의 조합이다. 본 연구에서는 IJ형이 가장 많았다. Park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EJ형이 많았고[22], Chung과 Kang의 연구에서는 EP형이 가장 많아[15]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IJ형은 결정지향적 내향형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끈기가 있으나 자기주장이 강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팀원과의 협력에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간호의 최신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다양성과 변화를 두려워하여 돌봄에 대한 자신감이 저하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식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돌봄 효능감은 6점 만점에 4.35 ( $\pm 0.66$ )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4.26

점[8], 4.22점[26]점보다 높았다. 선행연구에서도[8,26] 학년이 올라갈수록 돌봄효능감이 높았는데 선행연구에서는 1학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차이의 결과로 보인다.

돌봄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건강상태였다. 임상실습만족과 전공만족이 높을수록 돌봄 효능감이 높았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10,26]. Je와 Kim은 간호대학생이 관찰 위주의 임상실습 시 임상실습 관련 무력감을 느끼고 돌봄효능감이 저하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어[26] 관찰 위주의 임상실습이 아닌 간호대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임상실습을 통해 임상실습만족과 돌봄효능감이 향상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직관이 낮아지고[27], 낮아진 전문직관은 돌봄효능감을 저하시키므로[6] 학과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임상실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기관과 지속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건강할수록 돌봄효능감이 높았다. 간호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28]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돌봄효능감이 높았다.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29] 사회심리적 건강이 좋을수록 돌봄능력이 높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건강문제는 간호수행자가 환자의 간호문제에 집중할 수 없으며 주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30] 환자와의 관계형성과 간호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다[1]. 돌봄효능감을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이 돌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돌봄효능감에 차이를 보이는 MBTI는 태도지표 중 EP형이었다. 외향형(E)은 인식과 판단을 통해 행동이 나올 때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며 외부생활양식이 정보 인식기능(P)을 선호한다는 의미이다. MBTI 태도지표와 돌봄효능감 관련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EP형은 적응력 있는 외향형이다.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IP보다 외부 상황에 더 빨리 적응한다. 그러므로 EP형은 어려운 상황을 도전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돌봄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효능감 향상을 위해서는 EP의 기능에 해당되는 자신의 내부보다는 외부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다양한 관계와 활동, 변화와 다양성에 적응하는 훈련 등을 통해 돌봄효능감이 향상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MBTI 선호경향 중 태도지표에 따라 돌봄효능감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돌봄은 간호대상자와의 상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타고난 선호경향을 포함한 행동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간호교육에서 돌봄효능감 향상을 위해 간호대학생의 선천적 선호경향을 이해하고 비선호경향을 발달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되어 할 것으로 판단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돌봄효능감 정도와 일반적 특성과 MBTI에 따른 돌봄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MBTI 16개의 성격유형 중 ISFJ유형이 가장 많았고 심리기능 유형은 SF형이 가장 많았다. 기질유형은 SJ형이 가장 많았고 태도지표는 IJ형이 가장 많았다. 돌봄 효능감은 6점 만점에 4.35점이었다. 돌봄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건강상태였다. 돌봄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MBTI는 태도 지표 중 EP형이었다. 본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의 대규모 표본을 적용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는 돌봄효능감 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선천적 선호경향을 이해하고 비선호경향을 발달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는 돌봄효능감을 측정 위한 도구 개발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1] Watson J, "Nursing: The philosophical science of caring", 1979,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2] M.M. Leininger, "Transcultural care diversity and universality: A theory of nursing", *Nursing & health care*. Vol. 6, No. 4, pp. 208-212, 1985.

- [3] J. Sadler, “A pilot study to measure the caring efficacy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Vol. 24, No. 6, pp. 295–299, November 2003.
- [4] K.E. Lee, J.Y. Hong, “Effects of Empathy, Caring efficacy and Stress Coping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December 20, No. 24, pp. 1251–1270, December 2020.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24.1251>
- [5] S.G. Kim, E.S. Do. “A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Caring efficac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8, pp. 231–239, August 2019. <https://doi.org/10.5762/KAIS.2019.20.8.231>
- [6] K.O. Park, M.S. Yi, “Nurses’ Experience of Career Ladder Programs in a General Hos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1, No. 5, pp. 581–592, October 2011. <http://dx.doi.org/10.4040/jkan.2011.41.5.581>
- [7] J.Y. Lee, S.Y. Pak, “The Impacts of Nurses’ Psycho-social Health and Social Support from Colleagues on Patient Caring Ability”,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22, No. 5, pp. 461–470, December 2016. <http://dx.doi.org/10.11111/jkana.2016.22.5.461>
- [8] E.H. Oh, S. Le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Moral Sensitivity on Caring Efficacy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 21, No. 8, pp. 619–628, August 2021. <https://doi.org/10.5392/JKCA.2021.21.08.619>
- [9] S.Y. Pak, “Impact Self-Reflection, Ego Stat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Car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10, pp. 379–387, October 2018. <https://doi.org/10.14400/JDC.2018.16.10.379>
- [10] J.S. Lee, H.Y. Cho,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caring effici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7, No.2, pp. 186–196, May 2021. <https://doi.org/10.5977/jkasne.2021.27.2.186>
- [11] M.H. Cho, W.G. Kim, “The Effect of Caring-character,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21, pp. 329–339, October 2021.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21.329>
- [12] C. G. Jung, *Psychology types* (H. G. Baynes, Trans. revised by R. F. C. Hull). Volume 6 of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3] J.T. Kim, H.S. Shim, “A validity study on Korean version of the Myers Briggs Type Indicator (MBTI)”,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3, No. 1, pp. 44–72, June 1990.
- [14] M.J. Go, “The Effect of MBTI Self Growth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3, No. 1, pp. 28–37, March 2014. <http://dx.doi.org/10.12934/jkpmhn.2014.23.1.28>
- [15] S.Y. Chung, G.Y. Kang, “MBTI Personality typ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8, No. 11, pp. 289–303, June 2018. <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11.289>
- [16] J.M. Park, J.H. Park, “Decision-Making Styl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 25, No. 1, pp. 37–46, February 2021. <https://doi.org/10.38083/JKNS.25.1.202102.037>
- [17] Y.R. Lee, S.H. Kim, M.S. Chu, “Stress, Stress Coping, and School Adaptation according to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Personality Type in Freshme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2, pp. 172–182, May 2013.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172>
- [18] Faul, F., E. Erdfelder, Buchner, A., & A. G. Lan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41, No. 4, pp. 149–1160, 2009. <https://doi.org/10.3758/BRM.41.4.1149>
- [19] C. J. Coates, “The Caring Efficacy Scale: nurses’ self-reports of caring In practice settings”, *Advanced Practice Nursing*, Vol. 3, No. 1, pp. 53–59, 1997.
- [20] J.O. Jeong, “The Effect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Empathy, Interpersonal ability, and Caring”, doctoral thesis a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August 2016.
- [21] M.Y. Chae, “Empathic Ability and Communication

- Ability according to MBTI Personality Typ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4, pp. 303-311, April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4.303>
- [22]J.M. Park, “Effects of Self-esteem and Stress Coping Styles on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MBTI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 47, No. 1, pp. 20-26, July 2022. <https://doi.org/10.21032/jhis.2022.47.1.20>
- [23]MBTI Korea Institute, “Professional Qualification Training Beginners”, 2021, Seoul: Misong Planning
- [24]J.T. Kim, H.S. Shim, “MBTI Form manual”, 2013, Seoul: Asesta
- [25]Y.H. Kwag, O.G. Kwon, “Effects of a Ready Planned Small Group Collaboration Learning Program through MBTI on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eer Matur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2, pp. 229-238, December 2010.
- [26]M. J. Je, S.Y. Kim, H.M. Choi, “The Influence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Field Practice Adapta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ing Efficacy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12, pp. 469-479, December 2020. <https://doi.org/10.14400/JDC.2020.18.12.469>
- [27]S.Y. Lim, Kim “The Relationships of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1, No. 2, pp. 192-206, May 2015. <http://dx.doi.org/10.17703/JCCT.2015.1.2.45>
- [28]E.J. Park, S.J. Shin,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aring 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Vol. 6, No. 2, December 2018. <http://db.koreascholar.com/article.aspx?code=364292>
- [29]J.Y. Lee, S.Y. Pak, “The Impacts of Nurses’ Psycho-social Health and Social Support from Colleagues on Patient Caring Ability”,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22, No. 5, pp 461-470, December 2016.
- [30]K.J. Kwon, S.H. Lee, “Occupational Stress and Coping Styles as Factors Affecting the Burnout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18, No. 4, pp. 383-393, December 2012. <http://dx.doi.org/10.11111/jkana.2012.18.4.383>